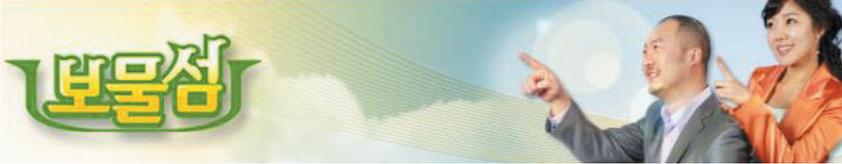


+ 이장섭 · 방송과학기술 기자

과학을 재미있게

YTN 'SCIENCE TV - 보물섬'



YTN의 '사이언스 TV'는 2007년 9월에 본방송을 시작으로 과학을 만나는 또 다른 창문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YTN이 과학기술부와 손잡고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24시간 과학전문 방송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나라 과학계의 생생한 정보와 전 세계 첨단기술 동향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과학이 지금껏 어렵다고 생각하던 우리에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며,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채널로 시청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 : <http://www.sciencetv.kr>



'보물섬'의 진행자 - 엄경환, 손영주

사이언스 TV의 프로그램들은 알차고 다양한 내용들로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외의 과학계 소식을 전하는 '사이언스 투데이', 한국인의 대표 질병을 분석하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제공하는 '이무송 정혜신의 토마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과학 기술들을 찾아가는 '보물섬' 등이 있다.

알토랑 같은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세상 속 과학을 탐구하는 '보물섬'의 녹화장을 찾아가자.

우리에게 과학이란 단어처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다. 이런 과학을 재미라는 코드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 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과학의 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이언스 TV 보물섬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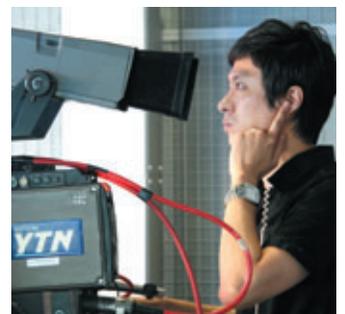
보물섬은 '재미있는 세상'과 '세상돋보기'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있는 세상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신기한 현상들을 과학으로 접근하여, 미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을 알려준다. 과학이 어렵다는 시청자의 선입견을 깨고, 잘 모르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준다. 세상돋보기는 직업과 학과의 상호 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국내의 모든 직업과 관련된 대학들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자정윤 PD]



[이건선 기술감독]



[임세혁 촬영감독]

Field Report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 과학을 재미있게 YTN, 'SCIENCE TV - 보물섬'

보물섬은 지정윤 PD, 김용남 AD, 김윤정, 진보라, 김요안나 작가의 명석한 두뇌와 재빠른 손에서 매주 한편의 과학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고 있다. 한 팀으로 구성되어 이번 주의 프로젝트 자료수집과 녹화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남은 시간에는 다음 주에 진행될 프로젝트를 준비해야하니 이들에게 일주일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빠르기만하다. 지정윤 PD는 "팀원들이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아이템이 문제인데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다"며, "작은 과정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는 모습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라며 일과 팀원들에 대한 마음을 보였다.

아이템을 찾다 보면 가끔 꼬이는 일도 발생한다고 한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섭외가 완료된 상태에서 VCR 자료용 제작을 위해 준비까지 마쳐놨는데, 갑자기 취재 전날 허기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것이다. 매일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취재 핑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어떤 때는 취재 중에 계속 회사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일정한 부분을 촬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것은 방송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웃으며 촬영하고, 편집의 노하우를 살려 필요한 부분만 방송에 나가도록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한다.

염경환 진행자는 혼자 진행하는 녹화본이 있다. 녹화 전 의상도 고쳐 입고, 대본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며, 자체 리허설로 입도 푼다. 녹화로 진행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제작하는 방송이고, 프로 진행자답게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이다. 방송인이면서 아내와 한 아이를 둔 가정으로써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이 멋지다.



촬영 당일, 재미있는 세상의 주제는 '모기'. 염경환 진행자가 모기에 물린 연기를 능청스럽게 하고, 손영주 아나운서가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센스로 녹화가 착착 진행된다.

이날 녹화에서는 과학기술로 새로워진 모기 퇴치기술의 현장을 소개했다. 모기는 인류의 천적으로 매년 세계적으로 3억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15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한다. 방역기술이 발달할수록 해충의 생명력도 점차 강력진다고 하는데, 이를 퇴치하기 위한 재미있는 퇴치기술들이 선보였다.



시청자에게 과학은 재미있는 것이니 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시청자들은 과학 프로그램을 웃으며 볼 것이다. 지금 보물섬 제작팀이 좋은 아이템과 훌륭한 제작으로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이야기를 부탁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소재로 속이 꽉 찬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국인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더욱 발전하여 해외에서도 방송될 수 있는 채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